

Part 1.

내가 수강한 온라인 우수강의 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팬데믹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학과 19학번 송예진

2020년 2학기, 내가 수강한 온라인 우수강의는 교육학과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론” 수업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회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꿨다. 2020년 1학기 갑작스러운 교육의 변화는 여러 한계로 이어졌으며, 교육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시작된 1학기 강의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고, 그중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의 부재, 나아가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의 부재는 2020년 1학기 온라인 강의의 한계였다. 이러한 팬데믹 사회 속 온라인 강의는 2학기에도 이어졌고, 교육에서는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이 요청되었다. 내가 2020년 2학기에 수강했던 7가지의 전공들은 기존 1학기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여 ‘소통’에 큰 비중을 두었던 수업들이었다. 녹화 강의로 진행되었던 수업에서 실시간 강의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교육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의 스펙트럼 속 내가 무엇보다 특별하게 생각했던 온라인 강의는 교육학과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론” 수업이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통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 사회 속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론” 수업은 실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학”(강현석 외, 천재교육) 교과서를 매개체로 하여 미래 교육학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강의이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고등학생, 때로는 교육학 교사가 되어 수업에 몰입하게 된다. 먼저,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은 교육학의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학습하며, 내용별 교사의 수업에 직접 참여해 소통한다. 이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가르칠 내용을 정하며,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 토의, 수업 실연하게 된다. 특히, 나는 교과서의 “ .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 - 2. 근대 공교육의 성과와 의미” 부분을 맡은 교사였으며, 한 학기동안 해당 내용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다.

첫 번째, “교사는 지속적인 배움의 존재”라는 것이었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교사는 교과서에 맞추어 지식을 구조화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알고 있는 지식을 펼쳐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1차적인 의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난 이후, 교사 그 자체에 대한 존재 의미가 바뀌었다. 교사는 지속적인 배움의 존재로서, 수업 내용을 끊임없이 고찰하고 변환하며 질문하는 존재였다. 예전에는 수업 실연을 준비할 때, 교과서의 틀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했다면, 이제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기 전,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강의를 통해 직접 수업 실연을 준비하면서 교과서 분석 유무의 수업 ‘질’ 차이를 알게 된 것이다.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론”강의에서는 말은 교과서의 내용을 “공식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분석하는 조건이 설정되었고, 학생들은 모두 각자의 수업 실연 부분을 분석했다. 나 역시도 “ .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 - 2. 근대 공교육의 성과와 의미”부분의 교과서를 분석하였으며,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수업 내용을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게 하는 데 그 효과가 있다.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	근대 공교육의 성과와 의미		·성찰하기 ·이해하기 ·탐구하기 ·비판하기 ·문제 해결하기

2) 성취기준

교육의 양태와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해 알고 그 변화의 주요 동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근대 공교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 공교육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교육적 현실이 있다면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12교육02-03] **근대 공교육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위와 같이 공식적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분석한 것은 정해진 수업 시간 내 내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내가 맡은 부분은 공교육의 의미는 물론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 근대 공교육의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공식적 교육과정

을 분석하면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근대 공교육의 성립 과정에 주목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해석했고, 그렇기에 공교육의 의미와 전개를 통한 ‘정의’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어떤 것을 중심으로 수업의 전개를 구성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을 더 보충하여 설명해야 할지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차원에서 교사는 수업에서 “질문하는 존재”로 남아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이어 두 번째는, 팬데믹 사회에서 교육이 왜 ‘소통’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는 그 무엇보다 편한 것이 많았다. 1시간 30분~2시간 정도의 통학 시간이 걸리는 나로서는 온라인 강의를 너무 좋았고, 특히 녹화 강의는 나의 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었다. 그렇기에 2020년 2학기 수업에서 실시간 강의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보며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나에게서는 여전히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수직적 위계만이 교육으로 떠오르며, 그렇기에 ‘소통’은 다소 불필요한 것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론”강의를 듣게 되었고, 교육 속 소통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먼저, 소통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와 같았다. 영 교육과정 차원에서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공교육을 왜 근대부터 설정하였을까?”, “공교육을 하나의 큰 흐름이 아닌, 단편적인 사건으로 배우는 것이 맞는 것일까?”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에서는 공교육과 관련하여 공교육의 시작을 ‘근대’부터 설명하고 있었고, 루터의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이라는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수업 실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문을 혼자 해결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다음과 같은 토의 문제를 설정하며 동료 교사들(교사의 교과서 분석을 듣는 대학생 모두는 동료 교사로서 참여한다.)의 의견을 들을 것을 결심했다.

해당 중단원, 그중 발표에서 다루었던 소단원 (1) “공교육의 의미와 전개”는 공교육의 역사와 관련하여 근대 공교육부터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같이 공교육은 근대 공교육부터로 한정하여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말해보자.

“교육학교과교육론”수업에서는 교과서 분석과 동시에 모든 교사들이 한두 가지의 토의 문제를 가져와 동료 교사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4~5명의 동료 교사들이 소회의실에서 토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토의 문제를 낸 교사는 소회의실을 순회하면서 자신이 낸 토의 문제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기회는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주었다. 동료 교사들은 “공교육을 근대 공교육부터로 한정하여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토의 문제에 대해 각자의 자유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애초에 공교육의 시작이 근대부터이고, 공교육과 관련한 방대한 역사를 모두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해주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공교육을 너무 단편적으로 다루는 것도 학생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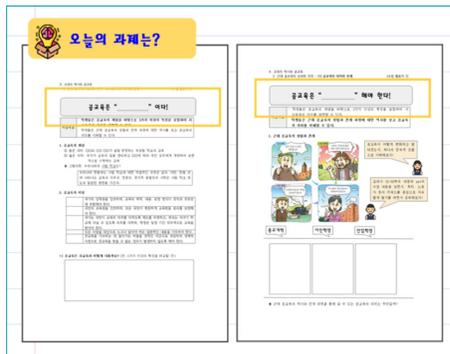
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동료 교사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업 실연에서는 교과서 내용의 한계를 보충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근대 공교육을 언급하기 전, 공교육의 사상과 이념이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근대 공교육이 성립될 수 있음을 흐름 차원에서 조망하였고, 단편적인 사실로 설명된 내용에서 생략된 사건들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혼자 고민했더라면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문제였다. 아직 완벽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든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고, 팀플보다는 개인 과제가 더 좋다고 여기는 입장이라 지금까지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론” 수업에서 소통의 효과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배움에서 왜 소통이 중요한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동시에 팬데믹 사회의 지식 전달만을 이루는 교육 현장에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배움의 확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론”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정의할 수 있었고, 교육 현장에서 소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다. 해당 강의는 앞선 두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에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강의와는 다르게 특별했다고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때로는 고등학생, 때로는 교사로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소 상황극처럼 보이는 이 강의는 기존 온라인 수업의 교수자-학습자의 수직적 관계를 넘나드는 데 그 효과를 지닌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교수자와 학습자의 입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유동적이고, 수평적이라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동료 교사들에게 ‘배우는 자’로 존재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은 교수님에게 ‘배우는 자’로 있지만, 때로는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있다. 이와 같이 역할에 근거한 “교육학교과교육론”수업의 몰입감은 기존의 온라인 강의를 뛰어넘는 강의법이 틀림없었다. 지식을 전달하는 자와 지식을 전달받는 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강의는 더 생동감 넘치는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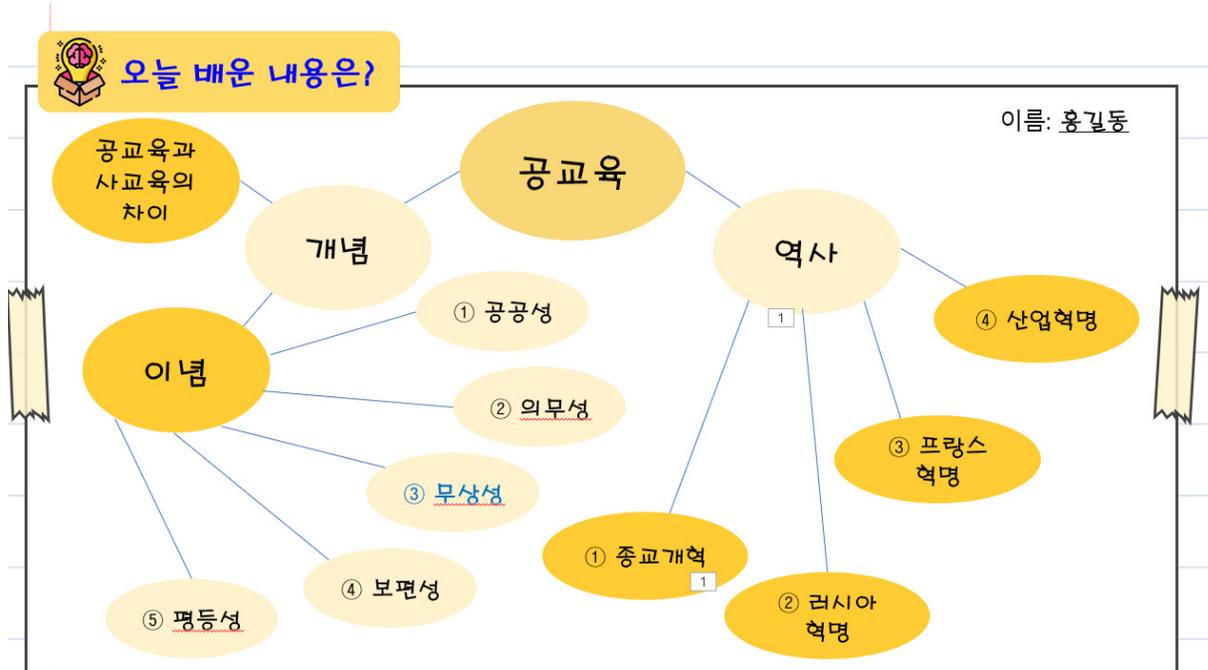
이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업인 만큼 온라인 강의만의 특별한 강의법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수업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 실연이다. 사실 2020년 여러 전공에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수업 실연을 해보았지만, 모든 수업의 배경은 다름 아닌 학교 현장이었다. 한 공간 안에서 학생이 “있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영상에 담은 수업 실연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교과교육론” 수업에서는 온라인 강의 특성에 맞춘 수업 실연을 하였다. 다름 아닌 팬데믹 사회 속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영상으로 학교 현장인 척 수업 실연을 한 적은 있어도, 온라인 수업을 구상하고 실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도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위해서는 보다 가독성 있는 수업 자료가 필요했고, 수업 자료를 미리 탑재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했으며, 어떤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답변과 반응을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구상해야만 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수업 실연에서

온라인 수업은 더더욱 고려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ZOOM 수업을 했던 만큼 교수자인 나의 수업 환경 준비도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인 학생들의 수업 준비를 이끌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나아가 학생들 중 마이크나 스피커 문제가 있는 학생은 없는지, 화면이 안 보이는 학생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했다.



한편, 활동지의 경우에는 PPT 화면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지하는 것에 유용했으며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와 활동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는 것이 필요했고, 동시에 페이지 수 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이 모두 음소거를 해제하고 답변을 할 경우, 소리가 겹쳐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일된 하나의 답을 말할 수 있도록 확인 학습 문제를 제시하여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다음과 같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직접 수업을 실연하면서, 다른 학우들은 고등학생의 입장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수업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여 나는 지금까지 수업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외 다른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 교과교육론” 수업을 통해 팬데믹 사회에서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직접 실행하면서, 새로운 교육적 환경에 대해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했다. 나아가 흔히 “교육이 위기다.”라고 말하는 환경 속에서 온라인 수업으로도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이 수업을 통해 배우는 주체로서의 교사가 수업을 위해 배움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학교 현장 속에서 타인과의 소통이 배움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았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기반으로 팬데믹 사회 속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하였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고 동시에 색다른 기회였기 때문에 이 강의는 그 어떤 수업보다 깨달음과 배움이 컸던 강의를 틀림없다. 이 강의를 통해 앞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전제로 나는 앞으로의 교육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정민 교수님의 “교육학 교과교육론”강의를 최고의 우수강의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바로 팬데믹 사회의 위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중 하나라고 본다.

우수상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

글로벌경영학과 19학번 **안예은**

[수강 동기]

1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등교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1학기 수업이 끝났다. 여름방학에도 지인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온전히 내 내면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노는 친구의 SNS를 볼 때마다 질투가 나서 괜히 거리를 두게 되었다. 친구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나 혼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싫었고, 자존감을 원래대로 다시 끌어올리고 싶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낮아진 원인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2학기 수강 신청할 때, 이형국 교수님의 <성격심리와자기이해> 과목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성격심리, 자기이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성격유형은 무엇인지, 이 성격을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었다.

곧은 의지를 다지고 첫 강의의 문을 열었고, 그 여운이 길게 남았다.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 내가 먼저 변해야 이후 상대방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바뀐다”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의 뜻에 공감하고 있다. 과거에 상대방 탓이라며 싸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내가 먼저 상대방을 다르게 대했더라면 결과는 분명히 바뀌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성격을 찾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다.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고자 했다.

[강의 소개 및 장점]

이형국 교수님의 <성격심리와자기이해> 수업은 재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신규 개설된 과목이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기 안에서 자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성격심리학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이상심리학, 긍정심리학,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의 연구를 함께 살펴보는 강의이다. 수업 시작 전 배워야 할 이론을 정리해주시고, 자세한 예시를 설명해주실 때는 사진이나 영상, 다양한 실험을 적극적으로 첨부해주셨다.

이 강의의 첫 번째 장점은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이때 가장 힘들지만 중요했던 것은 교수자와 학생 간의 소통이었다. 교수님께서도 공지 사항이 있으면 수업 중에 강조해주시고, 이캠퍼스 공지 사항에 한 번 더 언급해주셨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점수 분배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바뀐 점을 미리 알려주셔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셨다. 이외에도 영상 녹음에 문제가 있거나 자료가 누락되었을 때, 녹화를 다시 하시는 등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로 반영해 주셨다. 그리고 수업자료를 일주일 전에 미리 올려주셨고, 이는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려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졌고, 이러한 교수님의 노력이 내가 이 수업에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

두 번째 장점은 심리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수님께서도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도 중요하다고 하였고, 말 그대로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심리검사를 제공해주셨다. 방어기제 유형 검사, M-gram 간이검사, 심리상태평가검사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를 소개해주셨다. 또한, 검사 항목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서 혼자서도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나는 한 학기 동안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검사를 모두 해보았고, 나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나의 약점은 무엇이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 수업의 또 다른 장점은 매주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사실 과제 할 때,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위해서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목표가 확고했던 나에게는 과제를 하는 시간이 유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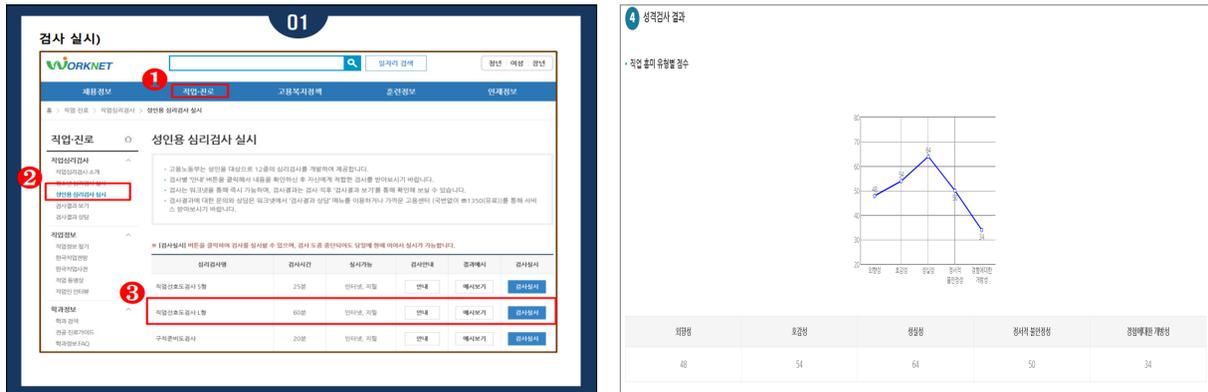
1주차 과제) "성격심리와 자기이해" 수강신청 동기 외	2020-09-02 오후 3:07	한컴오피스 2018 ...	59KB
2주차 과제) 자기 및 주요 주변인의 성격 탐색 기초	2020-09-11 오후 5:21	한컴오피스 2018 ...	73KB
3주차 과제) 대표적 성격 관련 유형검사와 특질(성)검사 실시 및 자기 이해하기	2020-09-17 오후 3:17	한컴오피스 2018 ...	217KB
4주차 과제) 성격장애 관련 10가지 내용을 수업들은 후 자신과 연결해 생각해 보기	2020-09-23 오후 8:42	한컴오피스 2018 ...	156KB
5주차 과제) 성격강점 검사(VIA검사) 실시 결과를 통한 자기 특성 이해하기	2020-10-04 오전 12:48	한컴오피스 2018 ...	203KB
6주차 과제) Enneagram 간이검사 실시 및 결과를 통한 자기 특성 이해하기	2020-10-11 오후 5:06	한컴오피스 2018 ...	272KB
7주차 과제) 강의 중간 점검(느낌보고서)	2020-10-15 오후 8:51	한컴오피스 2018 ...	68KB
9주차 과제) 성격의 결정요인 중 선천적 요인에 대해 정리하기	2020-11-01 오후 11:43	한컴오피스 2018 ...	76KB
10주차 과제) 나는 어떤 기질을 지니고 태어났을까	2020-11-09 오후 9:05	한컴오피스 2018 ...	87KB
11주차 과제) 내 성격의 구성요소로서의 동기와 정서 경험하기	2020-11-15 오후 11:33	한컴오피스 2018 ...	78KB
12주차 과제) 자기개념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한 자기 탐색	2020-11-22 오후 11:15	한컴오피스 2018 ...	450KB
13주차 과제) 대인관계 원형모델에서 대인관계 패턴 탐색하기	2020-11-28 오후 11:35	한컴오피스 2018 ...	78KB
14주차 과제) 한 학기를 보내면서... (기말점검)	2020-12-03 오후 9:10	한컴오피스 2018 ...	63KB

위 사진처럼 매주 다른 과제를 내주시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을 삶에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큰 틀은 같다. 학기를 마무리하고 지금 돌아보면 과제 하는 데 할애했던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내가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던 것 같다.

대학 입학 후 거의 처음으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집중하였다.

내 삶에 적용

앞서 말했듯이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내 예상대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다. 성격 5 요인 검사를 처음 해보았는데, 성실성의 세부 항목인 유능성(자신을 유능하게 보는 정도)에서 최하점이 나왔다. 실제 결과로 보니깐 약간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천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왼쪽 사진은 교수님께서 심리검사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고, 오른쪽은 나의 성격 5 요인 검사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성격 변화 방법을 찾아보았다.

처음에 뭐부터 변화시켜야 할지 막막해하던 순간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다. “내가 변해야 상황이 바뀌고, 상대방이 바뀐다.”라는 것이었다. 친구를 질투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우울해진 상황을 바꾸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선 내 신념을 바꿨다. 그동안 나는 ‘애는 나랑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해!’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역지사지해보니 사실 나 또한 여러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 내 친구 관계에 간섭하면 매우 불편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관계에 심하게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모든 사람과 단짝처럼 지낼 수 없으며, 내 인생에 친구가 전부 아니다’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심리학 서적이거나 강연을 접하고 싶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았기에 누군가의 실질적인 조언을 받고 싶었다.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수님께서 대면 수업에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추천해주셨다. e-book으로 빌려서 보았는데, 와닿는 구절이 많아서 바로 구매하였고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였다. 단락마다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었고, 그중 ‘괜찮아 일기 쓰기’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일기장에 오늘 일을 적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적고, 밑에 괜찮다고 쓰는 것이다. 자존감을 위해 딱 한 달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자고 다짐하였다.

성격을 바꾸기 위한 세 번째 시도는 위의 것과 연결된다. 괜찮아 일기를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쓰는 것이다. 초반에 일기를 쓰면서 생각나는 감정이 ‘좋다. 우울하다. 행복하다...’이 정도였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 다음 주 수업에서 정서 원형 모델에 대해 배웠다. 기본정서 8개, 복합정서 8개, 그리고 강도에 따라 16

개 총 32개의 감정을 배웠다. 원형 모델을 출력해서 다이어리 앞에 꽂아두었다. 그리고 일기 쓸 때마다 참고해서 적었다. 정서 원형 모델을 보면서, 내 감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이제 한 달이 채워져 가는데, 매일매일의 감정변화를 한 번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일기를 꾸준히 썼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졌다.

이렇듯 나 자신을 인지, 행동, 체험적 측면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먼저 비합리적인 신념을 버리고,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친구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 친구의 SNS를 보더라도 딱 흐뭇해하는 정도에서 끝났다. 예전 같으면 내 모습과 비교하고, 나는 왜 집에 혼자 있을까 하며 우울함에 빠졌을 텐데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괜찮아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사실 내 일과에 대해 무조건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에도 밑에 괜찮다고 쓰여있으니깐 약간 위로를 받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정서 원형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오늘 하루 내 기분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이 큰일은 아니지만, 한 달 동안 써놓은 걸 보니 뭔가 해낸 것 같아서 기뻐다.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에 해주신 이 말이 또 나를 위로해주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동기를 주시는 듯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나의 자존감을 위해 앞으로도 훈련할 것이다.

[추천 이유 및 소감]

이 강의를 상명대학교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특히,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존감이 낮아 걱정인 학생들, 자신의 성격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사실 내가 추천하기 이전에 이미 이형국 교수님의 강의는 ‘꿀강’, ‘힐링 강의’로 잘 알려져 있다. 좋은 강의의 단점은 입소문을 타서 많은 학생이 눈독을 들인다는 것이다. 수강인원이 90명인 대형강의 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인원 초과가 되어버린다. 나는 수강 신청을 한 번에 성공하고 떨 듯이 기뻐다. 그러던 중에 중간고사 전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학교의 공지를 받았고, 이 강의를 기대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더 아쉽게 다가왔다.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학기 초 나의 자존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교수님의 역동적인 수업과 함께 나는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다. 강의 길어도 짧지 않고, 매주 과제를 제출해야 하므로 흔히 말하는 꿀강은 아닐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문득 생각나는 ‘인생 강의’임에는 틀림없다. 단순히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듣길 바란다.

정말 듣고 싶었던 <성격심리와자기이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행복했고, 한 학기 동안 행복한 강의를 이끌어주신 이형국 교수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우수상

남다른 열정으로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이끌어 내신 교수님

글로벌경영학과 19학번 김유진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Pandemic)이 장기전이 되면서 많은 것이 우리 삶을 바꿔놓았다. ‘온택트’, ‘언택트’라는 단어들처럼 직접적인 만남 없이,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다. 특히, 교육계는 이와 같은 변화를 신속하게 받아들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전면 온라인 강의 또는 혼합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2020년은 계속되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와 다양한 정책의 변화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은 물론 학교까지 매우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에 학생들과 교수님 모두 생소함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셨다. 많은 교수님들이 다양한 온라인 수업운영방식과 시험방식 등을 연구하시고 실행하셨지만 나는 그중에서도 수업 내내 큰 도전 그리고 유익이 되었던 인상 깊은 수업하나가 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남다른 열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양희순 교수님의 ‘패션노믹스’수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양희순 교수님의 ‘패션노믹스’수업은 의류학과의 수업이다. 이 수업은 패션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역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경제원리를 함께 공부한다. 패션의 개념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 걸 맞는 경제, 경영의 기본 개념까지 공부하면서 이를 패션산업에 적용해보는 수업이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패션 업계들을 살펴봄에 현재 패션시장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이러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희순 교수님께서서는 교수님만의 특별하고 흡입력이 있는 온라인 수업 방식을 적용하셨다.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학생들과 빠르게 상호작용하셨고, 실시간 수업을 통해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하셨다. 또한 정확하고 풍부한 수업 내용을 전수하시며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셨고, 마지막으로 실무분야의 강사님들을 통한 특강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셨다. 그로인하여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하게 지쳐있던 학생들을 열정가운데로

이끌어 내셨다. 가장 먼저 양희순 교수님께서서는 E-Campus 뿐만 아닌 다양한 매체, 그 중 ‘카카오톡’을 활용하며 수강생들과의 빠른 상호작용을 하셨다. 사실상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상당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같은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은 빠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 몇몇의 교수님들은 메시지나 문자를 보내면 한참 뒤에 답이 오거나 아예 답이 오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양희순 교수님은 이에 대하여 빠른 대처로 학생들과 의사소통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E-Campus, Webex 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톡방’을 직접 개설하셨다. E-Campus 메시지로 공지사항을 알리시고 다시 한 번 카카오톡에서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공지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또한 수업 전, 곧 수업이 시작함을 알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다.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이다. 그렇기에 이 앱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빠른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변동사항, 중요사항들을 재차 강조해주셨다. 수강생들의 질문과 요구에 관하여 E-Campus 메시지와 이메일로도 다른 교수님들보다 월등히 빠른 답변을 해주셨지만,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면 즉시 답을 해주셨기에 그 때마다 궁금증을 해소해주시기까지 하셨다. 이처럼 교수님의 빠른 의사소통 방식은 혹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답답함과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양희순 교수님은 학생들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Live), 즉 Webex를 통한 실시간 수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많은 교수님들이 녹화강의를 올려주시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강의를 듣는 수업방식을 택하셨다. 하지만 사실 이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강의를 쳐놓고 직접 수업을 듣고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다. 또한 수업에 관하여 교수님과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나도 녹화강의를 보며 집중하려해도 금방 집중이 흐트러지고 다른 생각이 들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양희순 교수님은 이러한 방식이 아닌 실시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셨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Webex를 통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평소에도 수업하실 때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시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이전과 같이 활발한 소통이 어려워지자 수업 도중 다양한 질문을 하시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물어보셨다. 계속해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지 항상 확인하셨다. 또한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직접 이름까지 호명하시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시기까지 하셨다. 학생들은 실시간 강의의 채팅 페이지를 통해서 강의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질문할 수 있었고, 교수님도 이를 적극 활용하시면서 수업 속에서 활발한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하셨다. 그렇기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 도중에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었고, 수강에 있어 몰입도 높은 참여가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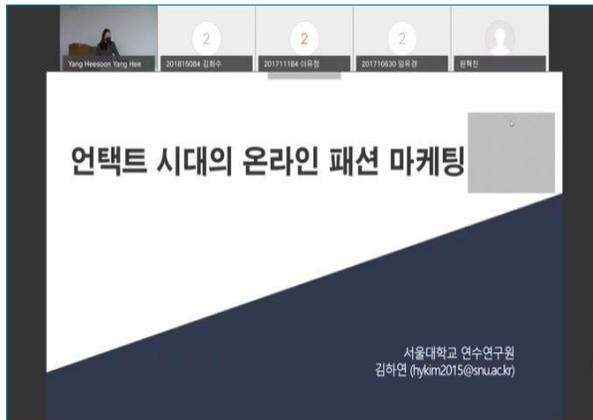
양희순 교수님은 누구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수업 자료를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셨다. 처음에 공지하셨던 강의계획서를 그대로 수업에서 실행하셨고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셨다. PPT를 그대로 읽는 읽기식 강의가 아닌 다양한 사례와 교수님의 실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심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셨다. 사실상 PPT를 그대로 읽는 수업은 세부사항들을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수업들이 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PPT와 그 PPT에 나와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더 자세히 해석해 주셨다. 특히, 패션수업에서는 시각적인 자료들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다. 매 수업마다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주셨다. 더 나아가 수업 내용에 있어 어려운 개념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며 수업을 통해 꼭 숙지해야 할 점들을 재차 강조해 주셨다. 단순 개념뿐만이 아닌 국내외적으로 직접적인 기업들의 사례들 통해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셨다.

가장 기억의 남는 사례가 세계 1위의 패션기업 ‘나이키’와 플랫폼 패션기업 ‘무신사’ 등의 사례였는데 사례를 소개하는 것 뿐 아니라 개념을 직접 적용해 주시며 개념과 다양한 사례의 연결성을 높여 주셨다. 그래서 지금의 패션산업에 무엇이 중요한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심으로 인해 학생들로 하여금 다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수업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부 강사들을 통한 특강을 적극 활용하셨다는 것이다. 사실상 원래 오프라인 수업이었던 과목은 온라인으로 전향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 수업 때보다 많은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러한 점도 고려하시고 학기에 2번, 수업의 이해를 돕는 특강을 진행하셨다.

<p>강사 소개</p> <p>이름 : 김진혁</p> <p>약력 : - 사조산업 회계, 정산, 기획, 원양사업부 근무 - 현 시몬느 기획실 근무 중</p> <p>저서 : 경영 내비게이션, 업무 MIA 방지책</p> <p>블로그 : https://blog.naver.com/silercan</p> <p>취미 :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이거면 치킨 한 마리, 도전 환영)</p> 	<p>목차</p> <p>INTRO. 강사 및 시몬느 소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패션 산업의 기본 구조 2. 패션 산업의 Business Process 3. 패션 회사의 Operation Process 4. Sales & Operation Process 5. Product Cost structure 6. 같은 산업, 다른 결과 7. 새로운 변화
--	--

먼저로는 7주차에 현 시몬느 기획실에서 근무 중이신 김진혁 강사님이 특강을 진행하셨다. 특강을 통해 패션산업의 기본 구조들과 과정들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으며, 다양한 통계와 자료들을 강의에 직접 가지고 오셔서 이해를 높여주셨다. 이 특강을 통해 의류업계의 흐름이 머릿속에 너무나 잘 정리가 되었다. 확실히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라 실무적인 것들, 회사가 돌아가는 방법들을 들으니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다른 특강은 12주차에 진행한 서울대학교 김하연 연구원님의“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패션 마케팅”이라는 특강이었다. ‘패션노믹스’수업에서 빅데이터, E-Business에 대해 배우면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 했었다. 이에 맞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주셨기에 ‘패션노믹스’수업의 전체적인 이해도가 상승한 것이다. 또 이 특강에서 모두가 알만한 다양한 의류 브랜드들을 예를 들어 주시며 말씀을 하셔서 이해하기 더 쉬웠다. 특히나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동향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흥미롭고 매우 수업에 도움이 되는 특강들이었다.

이외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과제 양과 시험 수준, 빠른 수준의 피드백, 수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더 깊게 생각 할 수 있도록 조별 발표과제를 시행하시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던 수업이었다. 매번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수님은 다양한 수업 자료와 과제, 수업 방식 등을 통해 실제 현장 강의와 가까운 수업 진행을 이끌어 내셨다는 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께서 이 ‘패션노믹스’라는 수업을 통해 나의 열정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의욕을 잃어가고 있던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품을 수 있게 해준 강의였다.

평소 패션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의류시장이라고 하면 비교적 다른 산업보다 작아 선택지가 적다고 생각했었는데 의류 관련된 업계도 정말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다는 걸 보았다. 또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주심으로 인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확고하게 들었다.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세계의 여러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흐름을 파악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도전정신을 이끌어 내주신 교수님께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드는 강의였다. 학생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수업이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부실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준 강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만일 다음 학기에도 온라인 강의를 지속된다면, 다시 한 번 열정을 갖고자 하거나 의류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강의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으로 인상적인 수업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교수님의 열정적인 노력을 본받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는 내가 될 것을 결심해 본다.

장려상

대 2병 완치하기

문헌정보학전공 19학번 박소미

대 2병?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휴학이나 워킹 홀리데이, 자퇴를 고민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불안하지만, 의욕도 없고 그저 막막하고 주위 사람과 나의 스펙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는 학생들이 걸리는 병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진짜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병명은 아니지만, 2019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대 2병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무려 64.6%에 달했으며 그중 1학년 43.3%만이 긍정적인 것에 비해 2학년부터 74.7%에 이르는 학생이 해당 질문에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 많은 대학생이 현재 고민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나 역시 학교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나가는 1학년을 보내고,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2020년 상반기를 비대면 학기로 보내고 나니 어느새 2학년 2학기를 앞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진로가 막막해서 왠지 모를 불안감과 막막함으로 가득 찬 이른바 “대 2병”에 걸린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사실 나는 1학년 때 이미 Career path를 결정해놓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는 진로 방향성을 설정해 둔 상태였으나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환학생, 휴학 계획, 창업 계획이 연이어 어그러지면서 더욱 절망적이고 방황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답답하고 걱정되긴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다른 사람을 따라 자격증 공부를 하고, 대외활동을 하면서 더욱 힘들어하던 그때, 수강신청 기간이 다가왔다.

커리어 디자인

수강신청을 위해 교과목들을 둘러보던 중 꼭 들어야 하는 전공과목을 제외하고 학점에 여유가 생겼다. 나는 평소 관심 있던 경영학 관련 과목이나 창업 관련 과목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전공과목을 더 들을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확고한 기준이 없으니 시간표를 짜기도 쉽지 않았다. 고민에 빠진 채 과목들을 살펴보던 나는 이형국 교수님의 커리어 디자인 과목을 발견했다. 처음 들어보는 과목이

라 강의계획서를 먼저 살펴보았다. 교과목에 대한 교수님의 지도 방향성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신의 삶에 기반을 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미래에 기반을 둔 진로설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당 교과목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삶의 철학, 삶의 심리학 기반의 생애진로 설계적 의식 형성과 구체적인 진로설계라는 두 관점을 포괄하여 인식, 설계하도록 조력하는 데 집중한다. ... (중략) 먼저 교과 1단계인 삶의 의미와 가치 인식 단계에서는 생애 설계적 관점의 인식 근원이 되는 삶의 철학적 관점에서의 이해력, 삶의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이해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가치 설정, 그리고 삶의 소명으로서의 자기 진로 탐색이라는 전반부 교육내용으로 진행한다. 교과 2단계인 현실적 진로설계 지도 단계는 자기 이해 및 특성 파악, 전공 기반 직무 중심 진로설계, 그리고 구체적인 역량개발 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대학생 진로설계 및 역량개발의 과정을 접목, 연결하여 교육함으로써 정보 전달 및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진로교육의 한계를 넘어 자신이 삶의 주인공으로 사유하는 진정한 Career-Design을 구현함과 동시에 수강 학생 개인별 경력 포트폴리오 작성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실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진로설계를 이룩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의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고자 한다.”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심리검사 등 다방면의 활동을 수행하므로 강의를 들으면서 한 학기 동안 나에 대한 이해와 진로설계에 있어 심층적인 탐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수강신청을 결정하게 되었다.

Career Start? 이제는 Design!

들떠서 수강신청에 성공한 후 강의평을 보니 커리어 디자인은 2019년까지만 해도 교양 필수 과목이었던 “상명커리어스타트”과목이 명칭을 변경하여 교양선택과목이 된 교과목이었다. P/F 과목이지만 선택과목이므로 졸업을 위해 해당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했던 이전보다는 수강생 모두가 의욕적일 것 같았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강의 계획에 팀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커리어 디자인은 Blended Learning(혼합학습법) 활용 : 주차 주제와 관련한 짧은 유튜브 동영상 소개하고 미리 보고 오도록 하여 온라인 학습과 면대면 학습이 혼합된 학습 형태로 수업 효과 강화, Modular Training(간접교수 방법 중 모듈 훈련) : 주차 주제 중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모듈작업지 등을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기학습력 강화, Brainstorming(상호학습으로서의 주제대화법) : 주차 주제 중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모듈별로 자유롭게 각자의 삶과 진로와 관련한 이해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룹 작업을 통해 생애진로설계적 의식 강화 라는 3가지 주요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방식이 힘들어진 상황이었다. 여타 수업들 또한 그렇겠지만, 이형국 교수님께서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상황에 맞게 수업방식을 적용하셨다. 이에 따라 2020년도 2학기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융합적으로 시행되어 교수자와 수강생 간의 1:1 상호작용에 맞추어, 수강생 개인에게 집중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은 매 주차 업로드된 강의를 듣고 수업 동기, 시간 관리 점검표, 직업가계도, 노동시장 살펴보기, MBTI 검사, 워크넷 적성검사 등 심리검사에 기반을 둔 자기 탐색, 성격 탐색, 직업·적성·흥미 탐색 등 주차 별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탐색은 물론, 학생 스스로 본인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다. 이렇게 주차 별로 작성한 과제들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에 개인별 Career Portfolio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과거 상명 커리어 스타트가 커리어를 “스타트”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면, 커리어 디자인 과목은 정말 학생들의 커리어를 스스로 “디자인”하는 것까지 이끌어주는 교과목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대 2병, 커리어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커리어 디자인 교과목은 수강하는 것만으로 커리어 패스를 주지 않는다. 현명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듯, 스스로 커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역량을 끌어 올려주는 과목이다. 교수님은 한 학기 동안 각각의 학생들이 자신을 다방면으로 고찰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자각하며, 어떻게 각자의 커리어 패스를 디자인하고 실현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구축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신다. 나는 커리어 디자인 과목을 들으며 불확실하게 지어진 미래성 같았던 나의 진로를 기초부터 다시 생각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감각으로 실현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 CEO가 되기 위한 과정과 실제 사례, 교내외 지원 프로그램, 구체적인 현실화 방법 등을 알아보고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원하는 진로 이외에 대체 방안까지 마련하여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등 나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이다. 그 전까지는 나의 커리어와 진로에 관해 생각할 때 직업에 국한해 생각하다보니 좁은 시야에 갇혀 형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직업의 조건적인 측면 등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수업을 듣게 된 후 나는 내가 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여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적 설계의 측면을 넘어, 인생 전반에 걸친 나의 가치관을 들여다보고 디자인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내게 주체적 태도를 길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여태까지 정해진 시간표와 공통된 목표에 맞춰서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 인생에 최소한의 기준선만이 존재하는데, 이마저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 언제든 대 2병이 찾아온다. 취업난이 워낙 극심하고 사회초년생에게 주어진 환경이 불안정하므로 “대 2병”이지, 대 2병이 꼭 대학교 2학년 때 오지는 않는다. 취준생, 시험 준비 기간, 이직 공백 기간, 은퇴 후 등 언제든지 찾아와 우리를 고민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대 2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내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디자이너가 되어 인생의 커리어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0대에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잡고 싶다면, 우리 대학의 커리어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여 내 인생의 커리어 디자이너가 되어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Career-Design - 5주차 과제

노동시장 동향과 자기 진로와의 고리 만들기

1. 오늘 들은 노동시장의 인제 동향 수업을 나와 연결해 본다면...

생각 보고
<p>문과계열의 경우는 전공과 직무의 상호 관련성이 대개 낮다는 점을 듣고, 역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나의 진로를 스스로 계획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경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분야로 노력해야 할지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한 편, 전공을 어느정도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전공을 살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인제가 될 수는 없을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2. 최근 노동시장의 동향 등을 배우고, 난 다음 진로 설계 및 자기 개발과 관련한 나의 현재 최대 고민,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p>가장 어려운 점은 꿈꾸는 진로가 스스로 계획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p>	<p>제가 꿈꾸는 진로가 창업이기 때문에, 현재 노동시장의 현황 뿐 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모두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p>

3. 현재 시점에서 이 수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바라는 점)

자기 목표	교수에게 바라는 점
<p>계속되는 수업에서의 진로에 대한 고민 시간과 정보를 통해 큰 삶의 방향성과, 대학 재학 기간 중의 달성 계획을 구상하고 싶습니다.</p>	<p>현재 수업과 같이 학생 혼자서는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현황 등의 다양한 진로 관련 정보를 많이 소개해주시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Career-Design - 1주차

“Career-Design” 수강신청 동기 외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과 이유로 이 수업을 신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솔직한 수강신청 동기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동기와 원의가 수업에 긍정적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첫주 수업 상호작용 과제임을 감안하여 간략한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아래의 세 질문에 솔직하게 서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이 수업을 수강신청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이 수업을 수강하려 했는지?)

<p>저는 창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과정에 있어 많은 것이 불안하고, 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방향성을 잡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 보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 내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고민에 대한 직/간접적 피드백 및 이를 통한 주제적인 진로 설계가 해당 과목의 수강신청 동기입니다.</p>

2. 첫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들은 지금 나는, 이 수업과 관련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는지?

<p>‘진로설계’라는 분야가 접근 방식에 따라 굉장히 형식적일 수도 있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리엔테이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생각하던 방향의 수업으로 알차게 진행될 것 같아 기대가 커졌습니다. 제가 따라가는 만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듣기 싫은 말’이 결국엔 내 스스로에게 하는 후회의 말로 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이 공감했고, 수업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막연하기만 했던 생각의 방향성을 하나하나 열어주셔서 좋았습니다.</p>
--
3. 이 시점에서 저에게 부탁이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적어주세요.

<p>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수업의 진행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면수업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큰 차 없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정된 일정으로는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 실리검사와 더불어 교수님과 피드백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오리엔테이션에서처럼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저서나 영상에 대한 소개가 많았으면 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한 학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

Career-Design - 13주차 과제

거시적 관점에서의 생애진로 고민해 보기

오늘 함께 탐색한 4차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의 직업세계는 참으로 급변하고 있고, 급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보이지도 않아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로, 우리의 미래를 미시적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미래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은 수업 때 이야기되었고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급변하는 미래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이에 대비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생애진로에 대해 간략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탐색하며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봅시다.

1.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대비책 정리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이제 겨우 5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 벌써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 그 속도가 가속화된 것 같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대안책으로 내 진로를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또 그 직업을 유지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최신 트렌드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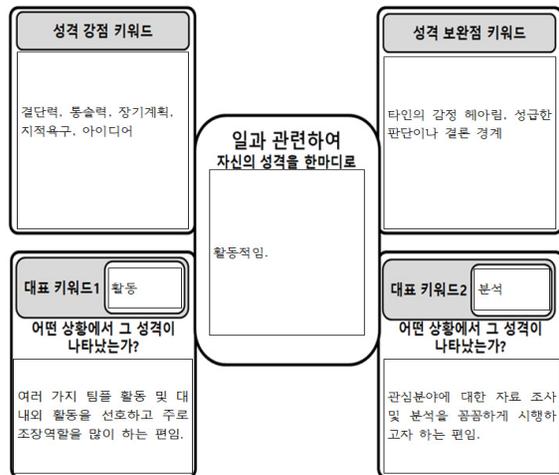
2. 이에 대비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생애진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정리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재난상황이 겹쳐 세계적으로 엄청난 불경기가 지속되자 흔히 ‘안전한’ 일자리가 각광받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수업에서 나온 통영성에 나온 말과 같이,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다양한 분야를 창직하고 내 길을 직접 개척해 나가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히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목표와 도전을 계속리하지 않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 진로를 대비하는 가장 최선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Career-Design - 6주차 과제

성격 탐색 결과를 진로와 연결하여 정리하기

1. 성격 탐색 결과를 통해 진로적 강점과 보완점 탐색하기



2. 성격검사 및 해석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문제와 관련해 느끼거나, 깨달은 점은?

예상하던 대로 결과가 나왔으며, 나의 진로와 부합하는 결과라 만족스럽다. 성격의 장단점을 잘 헤아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림 1〉 커리어스타트 과제 중 일부

장려상

목이 마르다면 샘 파는 방법부터 알아야 한다

조형예술전공 20학번 박주연

인간은 살면서 두 가지의 갈증을 느끼고 이를 충족하며 살아간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갈증은 생리적 의미에서의 갈증과 학구적 의미에서의 갈증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의 갈증은 모두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채워져야 할 요소이다. 사람의 신체에 70~90%의 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분의 양이 줄어들수록 신체에 악영향이 가는 것처럼, 학구적 갈증이 커져갈수록 탐구하고 교류하며 살아가려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존엄성은 죽고 결국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학구적 갈증을 눈치 채고 이를 해결하려고 애쓴다면 인간으로서의 나는 계속 살아 숨 쉴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두 가지의 갈증을 모두 해소하여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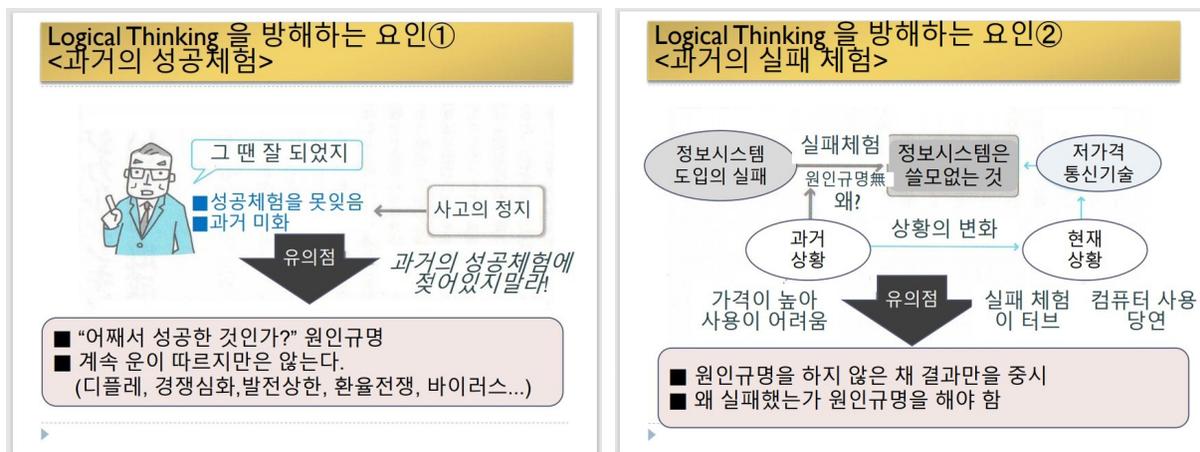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나, 현대 사회는 생리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 해 죽음을 맞이하는 곳은 아니다. 편의점, 마트, 건물 내부의 정수기 등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우리의 생리적 갈증을 채워줄 물이 여기저기 존재한다. 그러나 학구적 갈증은 어디서 해소해야 할까? 인간이 느끼는 학구적 갈증을 편의점, 마트 같은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라는 곳을 만들었다. 연령과 수준에 따라 교육을 받고 학구적 갈증을 채울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기관을 세워 배움의 갈증을 채워주고 채움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기는커녕 집에 머무르며 제한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분명히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평소에 해오던 교육의 방식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야 했고 학생들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공부해야 했다. 새내기로 풋내 나는 모습으로 즐거운 대학 생활을 기대한 신입생, 변화는 예상치도 못한 채 성적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 재학생, 처음 겪는 상황에 부족한 상태로 교육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교수 모두가 학구적 갈증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1학기는 금방 지나가버렸고 교육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비대면 형태의 교육에 대해 깊은 고안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상 회의 프로그램이나 e-campus 서버 등은 강화를 시작했고 교수들은 자신의 커리큘럼을 코로나 시국에 알맞은 방식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와 비대면 교육 방식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향상된 교육 방식으로 비대면임에도 수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모든 수업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글에서는 개중에서 필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우수 강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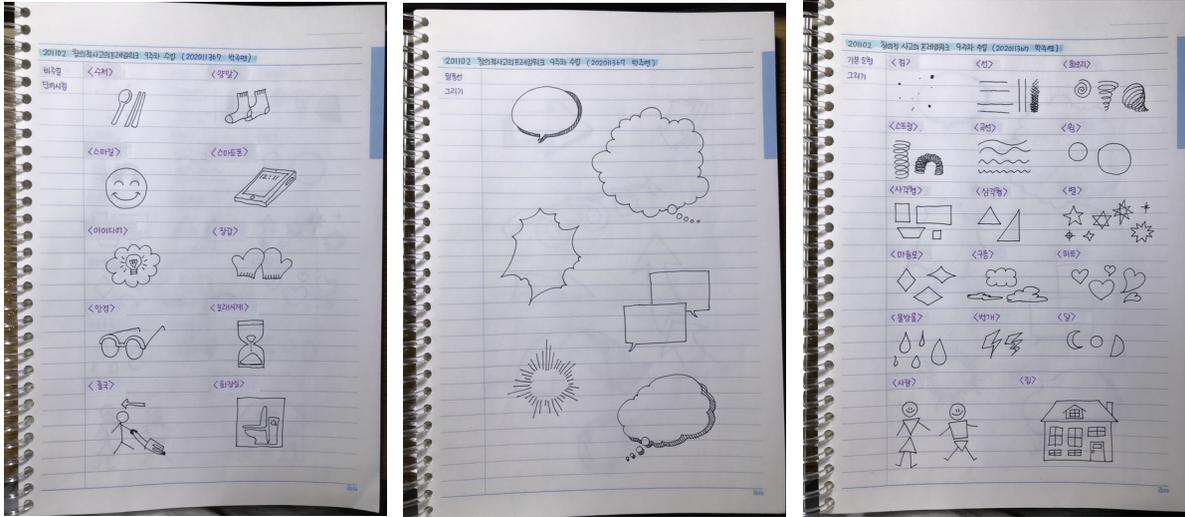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강의는 ‘창의적 사고의 프레임워크’이다. 이는 세계화, 정보화가 가속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예상치 못 했던 상황에 대처하는 창의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다루는 강의로, 성운아 교수님과 이현진 교수님께서 강의를 담당하셨다. 사고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다룬다고 언급한 강의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강의에서는 생각의 틀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점이 다른 강의와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생각부터 하고 시작한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고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운으로만 해결되기에는 사회에 변수, 변화의 속도가 편재한 상태이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 경험에 편승하여 징크스에 의존했던 필자는 이러한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이 강의는 시작부터 필자가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 꼬집으며 논리적 사고에 대해 설명하였다. 교수님께서 알고 그러셨겠느냐는 강의를 통해 나는 지난날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존재하고 운은 부수적인 요소일 뿐인데 숲이 아닌 나무에 집착했던 나의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다. 이를 기점으로 그동안 해왔던 나의 사고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 강의는 그러한 나에게 각성의 도화선이 되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강의에서는 매주 과제를 주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강의에서도 배운 내용에 대해 다루는 과제를 내주셨지만 실습 수업이 아닌 이상 과제를 함으로써 배운 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특히, 이현진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과제는 이론으로만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하며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수업에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세

부 사항에 대해 다룬 뒤 필자는 이 강의의 교육 과정 중 일부인 ‘비주얼 씩킹’을 예로 들어 보겠다.



비주얼 씩킹은 자신의 생각을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체계화하고 기억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사고 방법으로 시각 정보를 주로 기억하는 뇌에게 있어 발상에 큰 도움이 되는 사고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시각화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 수업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파한 뒤 과제로써 이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살표, 다양한 도형, 말풍선 등 간단한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상황에서 비주얼 씩킹을 할 줄 아는 훈련을 하였다. 예를 들어 레시피 기록이라거나 회사에서 근무 시 전달해야 할 사항을 메모하는 등 다양하고도 일반적인 상황들을 통해 색다른 사고를 직접 해 보았다. ‘비주얼 씩킹’을 배운 날에 그랬듯 다른 주차에서도 배운 내용을 체감하는 과제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혔다. 이것이 필자가 이 강의를 소개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과제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한 뒤에는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응용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시험을 출제하였다. 중간고사는 대체 과제로, 기말고사는 지필 고사로 시험을 치렀는데 모두 교육받은 부분들을 응용해야 했다. 중간고사로는 창의적 사고 도구 중에 하나인 ‘SCAMPER’를 이용하여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기말고사로는 SCAMPER와 시스템 사고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출제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제한된 시간 내에 새롭게 익힌 창의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의 목표 그 자체였기에 한 학기동안 강의를 수강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창의적 사고의 프레임워크’는 추천할만한 강의로서 강의 자료 또한 우수했다. 매주 적지 않은 분량인데다가 강의에 알맞은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을 곁들인 PPT를 통해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강의 자료를 제공하셨다. 특히나 이현진 교수님께서서는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 이미지 자료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PPT 및 강의 영상을 만드셨다. 이는 별 것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의자의 강의에 갖는 성의가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말로만 설명하고 끝내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는 교수자의 태도가 학생에게 전해질 수 있기도 하기에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는 온라인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대면 수업으로 신경 쓸 수 없는 집중력이나 소통에 대한 부분을 사로잡았다고도 볼 수 있기에 이를 우수 강의의 면모로 소개한다.

강의를 통해 필자는 다른 강의와의 연계성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미술대학 소속으로 전공 수업에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주제가 폭넓어 주관, 창의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빠르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다. 지난 학기에 필자는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여 작품 제작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다양한 사고 방법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면서 작품에도 독창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강의의 연계성에 대한 필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학기에 수강한 강의 중 하나인 ‘인체드로잉과 해부학’에서 필자는 기말 자유 작업으로 인체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어야 했다. 인체는 수업에서 많이 그렸지만 주제를 잡고 그럴 듯한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했다. 그러나 곧 인체를 소재로 하여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을 표현하기로 했고 여성의 신체를 스케치북에 꼭 채워 그려 답답한 모습을 표현했다. 그러나 막상 다 그려 놓고 나니 부족한 느낌이 들어 고민하던 찰나에 고기나 생선이 랩에 포장되어 있을 때 답답해 보이던 느낌을 연상하여 작품을 랩으로 감쌌다. 랩을 음식을 보호하는 용도가 아니라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한 것이다. 배운 내용에 대입해보자면 SCAMPER 중 P, 즉 Put to other use인 것이다. 랩으로 감싼 작품은 주변 사람들과 교수님의 호응을 얻었고 필자도 만족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는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으로써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던 사례로 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뻐던 업적 중 하나로 2020년 2학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학기, 필자는 학구적 갈등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준 우수 강의를 수강하였고 이를 통해 학구적 갈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이 강의에서는 갈등을 인식하고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 방법’을 배웠다.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고 아무 샘이나 파면 안 되듯이 이 강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가르침에 대해 인식하고 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즉 샘을 파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나 또한 마실 만한 샘 속의 물을 지나치고 특정 강의만을 선호했을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강의였고 누군가에게는 명강의였을 모든 강의는 목마른 자에 의해 그 가치가 발굴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가치를 알아채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려상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최고의 수업

가족복지학과 19학번 **장지승**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비자행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행동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 마디였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비대면 강의를 듣는다는 게 실감이 났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강의실 맨 앞에 앉아 두근대는 마음으로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렇게 2학기가 시작되었다.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급격한 환경변화 하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과 관련된 욕구, 태도, 동기, 행동 등의 측면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소비자행동의 측면들을 살펴본다면 마케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경영학부를 다전공하면서 CDR을 마케팅기획관리전문가로 설정한 후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다.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소비자 행동을 학습하고 싶어 소비자행동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게 되었다.

‘소비자행동’ 수업이란?

성공적인 경영과 마케팅의 수행을 위해서는 고객, 사업상의 파트너, 주주, 종업원 등과 같은 다양한 조직 내/외부 관계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공물의 구매 주체라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창출과 성장을 위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소비자행동’ 과목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행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본다.



〈그림 1〉 소비자행동 수업 교재 예시

‘소비자행동’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미리 녹화된 강의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수강한 소비자행동 4분반은 화,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업으로 교수님께서 매주 교재를 E-campus에 올려주셔서 프린트하여 필기하면서 공부하였다. 먼저 개념을 공부한 후 교수님께서 보여주는 실제 사례 영상을 통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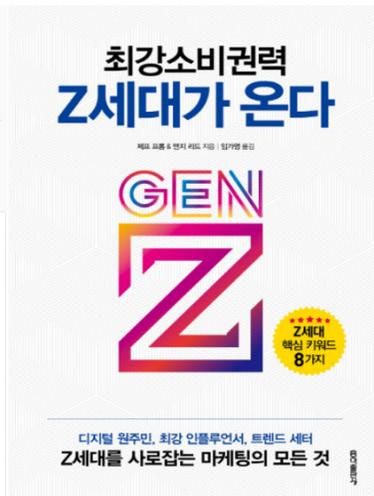
자료공유방

본 자료공유방은 학기말의 강의평가 가운데 하나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켰는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소비자행동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TV, 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한 다양한 뉴스, 기사, 드라마, 영화, 기업 사례, 다큐멘터리 등에서 소비자행동과 관련된 시사점을 발견했다면 참여정신을 발휘해 이 곳에 공유해 주세요. 또한 친구들이 올린 글을 읽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수업 때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지식을 공유할 때 수업의 효과는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체 게시글수 : 14 전체 페이지 : 1 / 1 15 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	유니티,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솔루션 출시	장지승	2020-12-10	5
13	CU, 백순과 버블의 나라: 연 마케팅 협업	장지승	2020-12-01	4
12	에스텔, 라이브 커머스서 생활약-비대면 마케팅 새 트렌드 선드	장지승	2020-11-24	2
11	의성군, 코로나 비대면 마케팅 성과로 농특산물 판매 전년 2배 성과	장지승	2020-11-17	4
10	신한은행 신규 광고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선보여 [2]	장지승	2020-11-10	6
9	[합입뉴스]코로나19로 시들했던 '데이 마케팅... 백베로는 좀 다를까	장지승	2020-11-03	4

〈그림 2〉 자료공유방



〈그림 3〉 수업에서 사용한 부교재

‘소비자행동’에서는 총 2가지의 과제가 주어졌는데, 첫번째 과제는 매주마다 마케팅 관련 뉴스 기사를 1개씩 학우들에게 공유하는 것이었다. 내가 찾은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공유한 기사들도 보면서 소비자행동과 관련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두번째 과제는 부교재로 선정된 ‘최강소비권력 Z세대가 온다’ 중 각 조별로 할당된 단원에 대해 발표하는 팀발표였다. 중간과제는 부교재 가운데 지정된 Chapter 내용을 요약하고, 해당 Chapter과 관련된 국내 Z세대의 현황 및 특징, 특성과 관련된 국내 기업의 대응 현황, 해당 주제와 관련된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구상해보는 것이었고, 기말과제는 지금까지 배운 소비자행동 수업 내용을 활용하

여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는 것이었다.

소비자행동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온라인 시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시험은 아무래도 겁이 났는데 미리 비대면 시험을 공지해주셔서 편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렇게 2차례의 시험을 치르고,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대면 강의도 비대면으로 급하게 바뀌면서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었다. 대학 강의를 비대면 강의로 듣게 된 학생, 강의를 녹화하거나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된 교수님 모두 혼란스럽고 힘든 학기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험/실기 수업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수업도 있었을 것이고, 이론 수업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전달이 잘 되는 수업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강의들이 이번 시기에 판가를 났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소비자행동’ 강의가 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대면 강의보다 대면 강의가 좀 더 전달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의 장점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신속한 피드백을 통한 학습 용이

먼저 학습 용이성을 들 수 있다. ‘소비자행동’ 강의의 장점이자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시간 강의식이 아닌 녹화식 강의로 진행된 만큼 학습용이성이 훨씬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직접 대면해야 이해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비자행동은 조금 달랐다. 단순히 교수님께서 말로 설명해주신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신 영상 공유를 통해 어떤 영상인지를 보여주셨다. 강의실 뒤쪽에 앉으면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순간 따라가지 못하고 놓쳐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필기하면서 내가 잘 이해하고 넘어갔는지, 어디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놓칠 걱정이 없이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하게 교수님을 따라 실습해야 하는 대면 수업보다 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게다가 강의 영상이 늦게 올라오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항상 정확한 시간에 올라왔다. 또한 대면 수업 신청이나 팀과제처럼 교수님의 공지를 기다릴 경우 미리 공지사항을 통해 빠르게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처리해주셨다. 궁금한 점을 이메일이나 이캠퍼스 메시지로 여쭙보면 피드백도 빨리 해주셔서 강의를 제시간에 듣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중간, 기말고사가 끝난 후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부분, 몰랐던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문제 하나하나마다 피드백을 달아주신 덕분에 퀴즈를 통한 인출과 피드백을 통한 리허설/정교화를 통해 학습한 내용이 장기 기억에 잘 자리잡을 수 있었다.

교재만 읽으면 어떤 걸 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았는데 사례 영상을 직접 찾아 보여주셔서 쉽게 따라갈 수 있었다. 소비자 행동과 기업 실무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위해 제공하는 광고를 비롯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던 만큼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수업이었다.

다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가 조금 다져지지 못한 상태로 2학년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누

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는 방식이어서 학습 의욕도 올라갔고, 흥미도 생겼다. 단순히 보고 지나쳤던 광고가 새로 보이기 시작했고,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고 광고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긋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해주시면서 내용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든 걸 설명해주신 덕분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특히 마케팅은 소비자의 욕구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꼈는데,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캐치하고 해석하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책 진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종강이 다가와 개념을 끝까지 배우지 못하고 수업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항상 책 진도를 끝내지 못하고 종강하는 수업은 끝까지 개념을 배우지 못해 아쉬웠는데, 최준원 교수님께서서는 학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나가지 못한 단원을 추가로 녹화해서 올려 주셨다. 추가 영상으로 소비자행동 개념의 마지막까지 학습할 수 있어 소비자행동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마케팅 역량 또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면 수업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상상도 못했을 일일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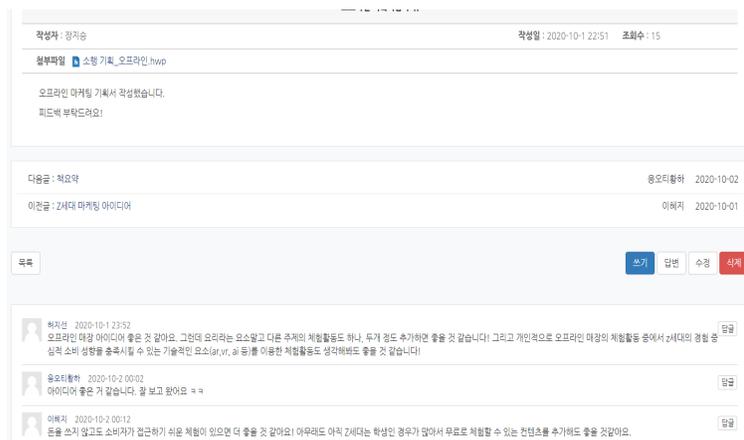
온라인 팀플의 달인이 되다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바로 과제였다. 매주 마케팅과 관련한 뉴스를 서치하고 공부하면서 현재 마케팅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마케팅 관련해서 책을 읽고 싶었는데 마침 팀발표 과제를 하면서 책을 읽고 Z세대 마케팅을 공부할 수 있었다.

온라인 팀프로젝트는 소비자행동 수업이 처음이었다. 온라인으로 팀활동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어색하고 소통도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팀활동을 1번도 아니고 2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언제까지 답답한 상황을 유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 이왕 온라인 팀프로젝트를 시작할 김에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스스로 팀장을 자청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려고 노력했다.

- ▶ 소비자행동_보너스강의_9장_2번 01:15:33
- ▶ 소비자행동_보너스강의_9장_3번 48:20
- ▶ 소비자행동_보너스강의_10장_1번 49:01
- ▶ 소비자행동_보너스강의_10장_2번 33:32
- ▶ 소비자행동_보너스강의_10장_3번 42:07
- ▶ 소비자행동_보너스강의_11장_1번 42:47
- ▶ 소비자행동_보너스강의_11장_2번 38:53
- ▶ 소비자행동_보너스강의_11장_3번 23:03

〈그림 4〉 종강 이후 업로드된 강의



〈그림 5〉 팀별로 상호작용을 진행한 모습

서로 자기소개하는 시간도 가지고, 팀별로 할당된 게시판을 활용해서 서로의 결과물에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올리고 다들 잊지 않고 기한에 맞춰 끝낼 수 있도록 상기시키며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경험 덕분인지 그 이후 진행된 스터디 상생플러스, 상명피어오름활동보고회, 과목 팀발표 등 여러 팀활동에서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새로운 공모전 도전의 계기

마케팅을 공부하고 직접 마케팅을 해보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배운 개념을 응용하며 확실히 머리 속에 각인하고 싶어 공모전에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비록 마케팅 공모전은 아니었지만, 소비자행동 개념을 적용해서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내보고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가게 되었다. 상명대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 아이디어를 공모전에 제출하였고,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소비자행동을 배우기 전까지는 공모전에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소비자행동’ 수업 덕분에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비자행동 개념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이를 적용하여 2차 학습도 진행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만나 뵙고 싶었던 교수님도 결국 뵙지 못하고, 하고 싶었던 대외활동도 무산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혹시나 감염될까 집에서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2학기에 수강한 ‘소비자행동’ 강의 덕분에 온라인 팀플에 익숙해질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공모전에서 수상하기까지 했다. 처음엔 단순히 흘려보낸 시간이 정말 아까웠다. 하지만 그 시간들로 인해 공모전도 수상하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다.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알차게 쓰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였다.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소비자행동 분석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짜여진 강의 계획서, 최준원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 자세히 볼 수 있는 1080p 고화질 영상까지, 총 3박자가 완벽히 어우러진 강의였다. 또한 교수님의 따뜻하신 말씀까지!

그동안 온라인 수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강의로 생각이 바뀌었다. 온라인 강의도 충분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소비자행동’ 강의는 이 사태를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위로와 큰 힘을 주었다는 것을. 이제는 비대면 강의가 나에게 낯설지 않다.

다음 학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최준원 교수님의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마케팅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다른 학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비자행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